

‘지역경제 활력 재원을 효율적으로’

군산시의회, 제212회 임시회 개최 추경예산 심의... 시정질문·5분 발언도

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가 제212회 임시회를 4일부터 1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4일 시의회는 제212회 임시회를 통해 2018년 제3회 추경예산 심의를 비롯해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사회적경제활성화 기본 조례안 유선우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강소기업육성 및 지원조례안 등 22건의 부의안 건 처리 및 간담회와 현장방문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될 제3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본예산 1조 206억원보다 1,193억(11.7%)이 증액된 1조 1,399억원으로 7일부터 각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자동차 및 조선산업 등 제조업 불황과 고용불안,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시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제한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김영일 의원의 시정질문, 배형원·김종신·설경민·정길수·김경식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김영일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강임준 시장은 당선자 첫 소감에서 군산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지역공장 해결, 신재생에너지 일자리 1만개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 5대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지만 경제적 위

기의 고통은 너무나 크고 시급하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방안과 성과 여부,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으로 5분 발언에 나선 배형원 의원은 IMF 구제 금융을 접하게 되면서 사회복지분야는 복지권 인권 평등권 등을 포함해 다양한 영역에서의 복지서비스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반면 군산시는 사회복지발생에 대해 더딘 대응과 역동적이고 능동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김종신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2002년에 조성한 월명공원 내 우레탄잔목로가 남 성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산책로 철거를 주장했다.

또한 설경민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의 토산어종 보호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정길수 의원도 상가 간판을 가리는 가로수와 가로수 뿌리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

하고 있어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상승과 도심 열섬현상 미세먼지 등 저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수목관리가 중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경식 의원은 기후 변화에 따른 호우피해에 대해 재해대책의 적극적인 대책수립 및 집행을 면밀히 검토하며 저류조 관리운영 체계와 시설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시민들의 피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김경구 의장은 “예산은 시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만큼 이번 제3회 추경정예예산안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편성됐는지 꼼꼼한 검토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군산=김정훈기자

익산 낭산면 폐석산 불법매립 폐기물 11월부터 이적처리

지정폐기물 불법매립으로 인해 민원 대상이 됐던 익산 낭산면 폐석산 복구지 불법매립 폐기물이 오는 11월부터 이적 처리에 들어간다.

익산시가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의 결과 지난 4월 민·관 협약식(환경부·전북도·익산시·낭산주민대책위) 약속한 불법매립 폐기물 1차분(5천톤)을 오는 11월부터 이적 처리하기로 했다.

환경부 담당자는 “차질없는 불법매립 폐기물 이적처리를 위해 지정·일반폐기물 4개 배출업체에 대하여 배출자간 협의체 구성 및 18년 11월 1일부터 부적정 처리된 폐기물 이적처리 착수계획이 포함된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능성 유용곤충, 새로운 농가소득 급부상

가능성 유용곤충 소득화 모델구축 사업 추진 곤충사육 가장 친환경적인 단백질 공급원으로

익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미래의 단백질 공급원이 될 식용곤충 산업을 위해 가능성 유용곤충 소득화 모델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첫 시범사업으로 가능성 유용곤충의 표준사육 기술도입해 가능성 유용곤충의 실용화로 농가 소득 증대 및 곤충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4일 현재 익산시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는 20가구로 대부분이 흰집박이 꽃무지와 생별귀뚜라미를 사육하고 있다.

국제식량기구인 FAO는 전세계 인구

가 2050년에는 90억 명이 넘어 인구증가로 인한 육류의 소비도 2010년 대비 2배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FAO는 단백질 식량위기를 극복할 방안으로 곤충을 지목했는데 식육으로서의 곤충사육은 사료효율이 높기 때문에 가장 친환경적인 단백질 공급원으로 평가 받고 있다.

예를 들어 귀뚜라미 1kg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2kg의 사료가 필요하나 쇠고기 1kg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약 8kg의 사료가 소모되기 때문이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4농가가 참여하

고 있으며 생별귀뚜라미를 사육할 수 있는 1,300㎡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참여농가는 식용곤충 사육기준 및 규격에 따른 곤충표준사육 기술 및 가공 공정 및 시설 표준화 기술, 소비자 체험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한 곤충을 활용한 체험학습, 식육용 사료용 등 유행별 소득화를 추진하며 소득증대를 위한 대량생산기술을 접목할 계획이다.

익산시는 국내 판매를 시작해 10월에는 미국으로 수출할 계획이다.

판매는 완전 건조한 귀뚜라미를 과립으로 가공하여 3g 단위의 스틱으로 만들어 30포씩 포장하여 판매한다.

/익산=우병희기자

익산시보건소 자기 혈관 숫자 알기 레드서클 캠페인

익산시보건소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9월 첫 주)을 맞아 4일부터 7일까지 자기 혈관숫자 알기, 레드서클 캠페인을 펼친다고 밝혔다.

자기 혈관숫자 알기 레드서클 캠페인은 우리나라 단일질환 사망원인 1위인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본인 스스로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인지와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지휘하에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된다.

캠페인은 4일 영등동 농협 주차장

앞 5일 송리문화예술회관, 6일과 7일은 보건소 1층 로비에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하는 레드서클존을 운영하고 보건소 내 전북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연계해 심뇌혈관질환, 금연홍보 및 상담 건강생활실천 안내 등의 홍보도 함께 이뤄진다.

한편 건강한 생활을 위한 적정수치는 혈압 120/80mmHg 미만, 공복혈당 100mg/dL 미만, 총콜레스테롤 200mg/dL 미만이다.

/익산=우병희기자

익산시 호우피해 마한로타리클럽 앞장서

최근 잇따른 폭우로 수해를 입은 농가를 돕기 위해 마한로타리클럽이 장비 지원에 나섰다.

익산마한로타리클럽(회장 김삼식)은 지난 3일 호우로 인한 저반침하가 발생해 주택 붕괴가 우려되는 왕궁면 왕궁로 소재 농가에 포클레인과 덤프트럭 장비를 긴급 지원해 응급복구 작업을 완료했다.

익산마한로타리클럽 고정세 역대 회장들이 사업 자금 마련에 공헌한 회원들은 “필요 장비를 긴급 지원하여

응급복구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며 “수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상처가 하루빨리 아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익산시는 현재 피해 상황을 접수해 읍·면·동을 통해 받고 있으며 조속한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신속한 복구가 이뤄져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상처가 하루빨리 아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군산시보건소는 민·관이 함께하는 치매 친화적 환경을 구축하고자 4개소 복지관을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지정하고 치매극복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치매극복사업 성공적 추진·환경 구축

군산시보건소, 치매극복선도단체 업무 협약

군산시보건소(소장 전형태)는 민·관이 함께하는 치매 친화적 환경을 구축하고자 4개소 복지관을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지정하고 치매극복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최근 보건소는 군산노인종합복지관(관장 신성호), 금강노인복지관(관장 박희수), 군산나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장정열), 군산종합사회복지관(관장 황성덕)과 함께 원활한 업무협조와 상호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각 기관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의 상호협력 하에 ▲치매이해교육을 통한 치매파트너 양성 ▲지역사회 치매극복을 위한 적극적 활동 협조 ▲치매 친화적 문화조성을 위한 상호교류 ▲상호 각종 활동

및 행사 공동 개최·협조 ▲기타 상호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서로 노력하고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식과 더불어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군산을 만들고자 간담회를 통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접근성이 먼 서부지역 어르신은 군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동부지역은 금강노인복지관에서, 구도심 지역은 군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독거노인이 많은 내운동은 군산나문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두뇌건강을 위한 인지증진 프로그램에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제고했으며, 오는 18일부터 각 복지관에서 보건소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다.

/군산=김정훈기자

군산시, 재해 발생 안전사고 예방에 행정력 집중

군산시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무연고 노후간판 및 위험간판을 대상으로 시민들의 신청을 받아 정비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흉물처럼 방치된 노후간판 및 위험간판을 철거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풍수해에 대비해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된다.

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시에서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철거 신청을 받으며, 신청은 군산시 홈페이지 및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해 건축경관과 광고물계나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축경관과(☎454-3612)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정훈기자

군산시, 민원실 야간 여권 접수 직장인·학생 ‘호응’

군산시가 평일 근무시간 내 여권 발급이 어려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여권 야간 접수 창구가 직장인과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에 따르면 매주 목요일을 ‘여권 야간 접수창구 운영의 날’로 지정해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으며 여권 발급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원하는 곳 어디서나 여권 수령이 가능한 여권등기 택배제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간 여권 발급 건수는 2015년 406건, 2016년 748건, 2017년 87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군산=김정훈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